

즉시보도용

2024년 2월 7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 LA경찰국 임시 국장 임명

로스앤젤레스 -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이 오늘 LA경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LAPD 임시국장으로 임명됐다.

캐런 배스 시장은 “최 부국장의 28년이란 풍부한 경험이 LA경찰국에 안정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 임명을 기꺼이 수락한 최 부국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인 2세인 도미닉 최 임시국장은 지난 1995년 LA경찰국에 합류했으며, 형사, 서전트, 루테넌트의 직위를 맡고, 2014년 풋힐 지역과 퍼시픽 지역의 캡틴으로 승진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센트럴 지부 사령관을 거쳐, 2019년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최 임시국장은 2024년 3월 1일 금요일부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58대 경찰국장이자 LA를 이끄는 첫번째 아시안이다.

LA경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최 부국장의 28년동안의 경험은 임시 국장직을 훌륭히 소화할 것입니다. 그는 방대한 지식과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잘 알려진,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경찰위원회는 그가 경찰국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차기 국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그는 경찰국과 커뮤니티를 이끌 것입니다.”

###